

한국대학생방일단 (제 1~2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프로그램(JENESYS2025)’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 105 명이 6월 24일~7월 2일까지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일했습니다. 일행은 테마 ‘일본의 평화를 위한 활동과 한일교류’ 하에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을 방문하여 각종 시찰, 일본 대학생들과의 교류, 테마에 따른 특강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등 총 105명

【방문지】 방일 (후쿠오카현 105명, 사가현 105명, 나가사키현 105명, 구마모토현 105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5월 30일 (금)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 프로그램 :

6월 24일 (화) 후쿠오카국제공항 입국, 도착 오리엔테이션

6월 25일 (수) 【학교방문·교류】 (제 1 단) 후쿠오카대학(福岡大学),
(제 2 단) 세이난가쿠인대학(西南学院大学)

6월 26일 (목) 사가현으로 이동, 【시찰】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특별사적 나고야성터 및 진영터, 수에야마신사 및 아리타 마을, 나가사키현으로 이동

6월 27일 (금) 【예방·특강】 나가사키 시청, ‘나가사키시의 개요에 대하여’,
【시찰】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평화공원,
【특강】 원자폭탄 폭격 증언

6월 28일 (토) 【시찰】 세계유산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 아리마 기리시탄 유산 기념관, 세계유산 ‘하라성터’
【특강】 ‘미나미시마바라 지역의 매력에 대해’,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6월 29일 (일) 종일 홈스테이

6월 30일 (월) 홈스테이 해산식, 구마모토현으로 이동, 【예방·특강】 구마모토현청, ‘구마모토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한국과의 교류에 대하여’,
【시찰】 구마모토 지진과 구마모토성 부흥상황에 대하여

7월 1일 (화) 【학교방문·교류】 (제 1 단) 구마모토가쿠엔대학(熊本学園大学),
(제 2 단) 구마모토대학(熊本大学),

후쿠오카현으로 이동, 성과보고회

7월 2일 (수) 후쿠오카국제공항 출국

2. 기록사진



6 월 25 일 【학교방문 · 교류】 후쿠오카대학



6 월 25 일 【학교방문 · 교류】 세이난가쿠인대학



6 월 26 일 【시찰】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특별 사적 나고야성터 및 진영터



6 월 27 일 【예방 · 특강】 나가사키 시청 ‘나가사키시의 개요에 대하여’



6 월 27 일 【시찰】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6 월 30 일 흥스테이 해산식



6 월 30 일 【예방 · 특강】 구마모토현청



6 월 30 일 【시찰】 구마모토성



7 월 1 일 【학교방문 · 교류】 구마모토가쿠엔대학



7 월 1 일 【학교방문 · 교류】 구마모토대학

3. 참가자의 감상 (발체)

◆ 한국 대학생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가정의 따뜻함과 일상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하며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식사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사용했고, 실수도 웃으며 받아주는 분위기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 덕분에 일본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문화차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한국 대학생

처음으로 일본가정에서 지내보며 일본의 일상과 생활문화를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특히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문화교류의 시작이라는 점을 느꼈다.

◆ 한국 대학생

일본 대학생들과의 교류활동 중 서로의 고민, 관심사,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비슷한 또래로서 공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국적을 떠나 ‘청년’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는 친구가 생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소중한 점이다.

◆ 한국 대학생

기존의 역사적, 문화적 프로그램 이외에도 일본의 가정을 잠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었던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고, 대학생 친구들과도 교류하며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잠시나마 얘기해 볼 수 있어 좋았다.

4. 일본측 감상(발체)

◆ 나가사키시청 관계자

100명을 넘는 방문자 및 전망대 견학 등 저희 과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대응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여러분 그리고 통역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가 한국과의 교류가 적어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언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반사단법인 미나미시마바라 히마와리 관광협회 관계자**

미나미시마바라시의 소개에서는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질문에 대해서도 활기차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2박 3일의 홈스테이 이촌식에서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일본의 시골생활을 체험하면서 말은 통하지 않아도 홈스테이 가족들과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도 이촌식에서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시 언젠가 미나미시마바라를 방문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방문학교 학생**

처음에는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는데, 한국 학생이 열심히 일본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설피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만나서 좋았다’ ‘한국에 오면 연락해’ 라고 말해 줘서 정말로 기뻐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인상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방문학교 학생**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서로가 각각의 나라의 예절과 뿌리를 배우고 이해하며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회가 종료된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일본과 한국의 역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인상에 남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만남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평생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자료 등

<p style="text-align: center;"><나고야성></p> <p>먼저 나고야성 박물관과 나고야성터 및 진영터를 견학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의 특강으로 나고야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과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가현은 한국인에게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일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일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특강 등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특강을 들으며, 전쟁의 아픔이 서로에게 남아있지만, 그 아픔을 교류로 치료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	 <p>나가사키 원폭자료실 견학</p> <p>나가사키 나가사키 원폭자료실 견학(2025년 6월 27일)</p> <p>2025년 6월 27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번째 원자폭탄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피해자료실에서는 원폭 피해 당시의 사진, 영상, 실제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실물 크기의 원자폭탄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 충격과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많은 일본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진</p>
<p>2025년 6월 27일 (Naver Blog)</p> <p>사가현은 한국인에게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일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일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특강 등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특강을 들으며, 전쟁의 아픔이 서로에게 남아 있지만, 그 아픔을 교류로 치료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	<p>2025년 6월 27일 (Naver Blog)</p> <p>이곳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번째 원자폭탄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피해자료실에서는 원폭 피해 당시의 사진, 영상, 실제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실물 크기의 원자폭탄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 충격과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많은 일본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진</p>

지한 모습에서 역사를 잊지 않고 배우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전시관 곳곳에 전시된 종이학 다발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Naver Blog)
너무너무 행복한 홈스테이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 사스케(반려견)와 함께한 하루하루가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이 돼서, 연수 내내 다양한 지역을 갔지만, 그중에서도 미나미시마바라가 가장 좋았던 지역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보고 싶다. 어머니 아버지 벌써 보고 싶어요.

2025년 7월 8일 (Naver Blog)
방일단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 중에 하나였던 구마모토성에 방문했다. 한국어로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한국분이 아니라, 한국어 배우신 일본 분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이었다. 노트에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필기해 오셔서 한국어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모습이 약간 감동이었다. 그리고 구마모토성은 또 너무 멋진 곳이었다.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둘러볼 수 있는 점도 멋있었고, 무엇보다 역사적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곳이었다.



2025년 7월 1일 (구마모토 일일 신문)
‘한국학생들 구마모토대에서 교류 일한국교정상화 60년 기념사업’ 한국 대학생이 대일 이해촉진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일한 것을 언급하고 구마모토대학에서의 교류내용 소개 및 단원 인터뷰를 게재.

2025년 7월 2일 (마이니치 신문)
‘한국 학생 100 명이 구마모토대에서 부흥을 배우다 일한교류 60년 기념사업’ 구마모토현청을 예방하고, 현의 담당자로부터 구마모토지진의 부흥상향과 산업·특산품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을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를 기재함)

<p>【성과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를 통해 언어, 가치관, 생활 방식 등에서 한국과 일본이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직접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가정의 식사 예절, 손님 응대 방식, 가족 간 소통 등 일상 속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깊이 있는 배움을 얻었다. •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나고야성 등의 방문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성을 되새기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업로드, 후기 작성, 학교 커뮤니티 홍보를 통해 방일단 활동을 널리 알리고 한일 교류의 중요성을 주변에 전파하고자 한다. • 일본어 자격증 공부, 일본인 유학생과의 교류 스터디 등을 통해 언어 실력과 문화 이해도를 동시에 높인다. • 9 월부터 교환학생을 위한 학습과 준비를 본격화하여, 이번 경험을 장기적인 한일 협력 활동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p>【성과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성과 구마모토성 시찰을 통해 일본의 통일과 번영을 이끈 무사 시대 역사의 대해 이해하고 도산신사 시찰을 통해 한일 간의 깊은 교류의 흔적을 배웠다. •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방문을 통해 전쟁의 아픔,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일본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취업 사정이나 일상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아동 문학 및 교재를 연구하며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업 지도안을 구상한다. • 일본 관련 에세이 대회, 국제 교류 기자단 등 관련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한국에 온 일본 유학생들과 교류 활동(캠퍼스 투어, 토론 등)을 진행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일본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과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